

태극전사로 돌아온 손흥민... 설욕전 '필승'

1년 만에 코로나19 속 원정 멕시코·카타르 차례로 상대 "두 팀 모두 이기고 싶다... 좋은 경기로 팬들께 인사"



11월 오스트리아 원정 A매치를 앞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소속 손흥민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마리아엔처스도르프 BSF2아레나 보조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1년 만에 태극전사로 돌아온 손흥민(28)이 멕시코·카타르전 '필승'을 외쳤다.

손흥민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과 멕시코의 평가전을 사흘 앞둔 12일(이하 한국시간)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가진 대한축구협회(KFA)와 인터뷰에서 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설욕'을 원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1년 만에 원정길에 오른 벤투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멕시코(15일), 카타르(17일)를 차례로 상대한다.

멕시코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1-2 패배를 안겨 한국의 조별리그 탈락에 결정타를 날렸다.

한국은 카타르에는 2019 아시안컵 8강전에서 0-1로 졌다. 벤투 감독 부임 이래 첫 패배였다.

손흥민은 이들 두 경기 모두 선발로 출전했다.

손흥민은 "두 팀 모두 큰 대회에서 경기를 치렀고, 우리에게 아픔을 줬다"면서 "막 훈련 시작하면서 선수들에게 이번 두 경기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두 팀 모두 이기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손흥민은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느낌을 묻는 말에는 "설레는 기분 느끼려고 대표팀에 오는 건 아니다"

라며 "많은 팬이 대표팀 경기를 기다렸고 모처럼 유럽에서 소집된 만큼 좋은 경기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손흥민과의 일문일답. >오랜만에 대표팀에 왔다.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표팀에 들어오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인니까. 동료들을 1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되게 기뻐했다.

그러나 설레는 기분 느끼려고 대표팀에 오는 건 아니냐.

팬이 대표팀경기를 기다리셨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처럼 유럽에서 소집됐다.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을 찾아뵙겠다.

>혹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많다. 체력적인 문제잖나. 아픈 덴 없나.

>매번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웃음) 나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난 축구 하는 게 늘 꿈이었고, 축구 할 때 행복하다. 당연히 피곤할 때도 있고, 이동시간도 많고... 하지만 이런 건 내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지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멕시코와 카타르는 우리에게 아픔을 준 상대다. 각오는.

>두 팀 모두 큰 대회에서 경기를 치렀고, 우리에게 아픔을 줬다. 막 훈련 시작하면서, 선수들에게 이번 두 경기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줬다. 나도 개인적으로 두 팀 모두 이기고 싶다.

물론 이기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1년 만에 A매치를 보시는 팬 여러분을 위해서다. 두 팀 모두 강팀이다. 하지만 우리도 강하다. 상대가 어렵게 경기하도록 잘 준비하겠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킥스볼링장에서 열린 '제34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학생 불링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제주대학교 불링 선수단.

제주대 불링팀 전국대회서 '새 역사'

대회 종합 준우승 차지 역대 가장 좋은 성적

제주대학교 불링 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제주대학교 불링 선수단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 킥스볼링장에서 열린 '제34회 대한불링협회장배 전국학생 불링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제주대 선수단은 2인조전(오병준·조찬영) 금메달, 3인조전(오병주·조찬영·변재용) 은메달, 3인조전(김도환·유현인·이민섭) 동메달, 개인종합(오병준) 금메달, 개인종합(조찬영) 동메달 등으로 종합 준우승의 성과를 일궈냈다. 우승은 한국체육대학교가 차지했다.

이번 종합 준우승은 제주대가 거둔 성적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류현진, AL 사이영상 투표 최종 3위

토론토 에이스 역할했지만 올해는 1위표 득표에 실패



투구하는 류현진. 연합뉴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다.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발표한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 결과에서 2위표 4장, 3위표 7장, 4위표 5장, 5위표 4장을 받아 총점 51점으로 세인 비버(클리블랜드 인디언스·210점), 마에다 겐타(미네소타 트윈스·92점)의 뒤를 이었다.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던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표 1장, 2위표 10장 등 88점을 얻어 2위를 차지했는데, 올해에도 최종 3명의 후보에 올라 득표에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1위표 득표엔 실패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12경기(67이닝)에 선발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 탈삼진 72개를 기록하며 토론토의 에이스 역할을 다했다.

비버는 올 시즌 12경기(77%이닝)

에 출전해 8승 1패 평균자책점 1.63, 탈삼진 122개, 마에다는 11경기(66%이닝)에서 6승 1패 평균자책점 2.70, 탈삼진 80개의 성적을 거뒀다. 사이영상 투표는 BBWAA 회원기자 30명이 참여했으며 투표는 정규 시즌 종료 후 진행됐다. 사이영상 투표권자는 1위부터 5위까지 5명의 투수를 선택하고 순위별 점수를 매겨 사이영상 수상자를 뽑았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내년 3·6월 개최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미뤄진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이 내년 3월과 6월 열린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대회 위원회 회의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일정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차 예선 H조에 속해 4경기를 남긴 한국은 내년 3월 투르크메니스탄과 홈 경기, 스리랑카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6월에는 북한·레바논과 홈 2연전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은 앞선 4경기에서 승점 8을 획득, 한 경기를 더 치른 투르크메니스탄(승점9)에 이어 H조 2위에 올라 있다. 2차 예선에선 각 조 2위까지 3차 예선에 나설 수 있다.

월드컵 2차 예선 이후 최종예선은 내년 9월 시작해 2022년 3월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흥국생명-GS칼텍스, 여자배구 흥행 기폭제되나

앞치락뒤치락 5세트 드라마 '끈끈한 대결'로 흥미진진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을 찾은 배구 팬 1669명은 흥국생명과 GS칼텍스가 벌인 5세트 드라마를 보고 본전을 다 뽑았다.

만나면 끈끈하게 맞붙는 두 팀의 대결이 여자 배구 흥행의 기폭제가 될 조짐이다.

2020-2021시즌 개막 후 5연승을 질주하던 흥국생명은 GS칼텍스를 세트 스코어 3-2로 따돌리고 연승을 '6'으로 늘렸다.

프로배구컵대회에서 막강한 전력인 흥국생명이 흥국생명에 일격을 날리고 정상에 오른 GS칼텍스는 비록 올 시즌 1, 2라운드에서 모두 흥국생명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흥국생명 대항마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1라운드 첫 대결에서 흥국생명은 GS칼텍스를 세트 스코어 3-1로 눌렀다. 다만, 1~3세트 모두 듀스 접전으로 팽팽했다.

11일 경기에서도 5세트 듀스에서 양 팀의 명암이 갈렸다. 15-15에서 흥국생명이 김미연의 블로킹과 이재영의 오픈 강타로 내리 점수를 따내 혈전을 마무리했다.

GS칼텍스는 삼각 편대의 한 축인 강소휘를 빼고도 흥국생명과 대등하게 싸웠다.

흥국생명도 오른쪽 어깨가 아픈 공격수 루시아 프레스코(등록명 루시아)를 최대한 아끼면서 GS칼텍스에 맞섰다. 루시아는 매 세트 20점 이후 높이 보강 차원에서 투입됐다.

몸이 성치 않은 주전들을 대신해 유서연(GS칼텍스)과 김미연(흥국생명) 등 두 백업 선수가 맹활약해 시소계임을 이끌었다.

앞치락뒤치락 명승부가 끝난 뒤 야깝게 진 차승현 GS칼텍스 감독이나 진땀으로 승점 2를 챙긴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 모두 경기 내용을 두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입장 관중 규모가 11일부터 경기장 수용 규모의 50%로 올라가면서 선수들의 정열도 뜨겁게 달아오른다.

승부처에서 경기 중 두 번이나 공격이 블로킹을 맞고 떨어지자 한 번은 배구공을 세차게 코트에 내리치고, 또 한 번은 네트를 끌어 내려 분노를 몸으로 표출한 김연경은 "많은 팬들이 오셔서 나도 더 열정적으로 뛴다"고 경기 중 보인 이례적인 행동을 설명했다.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경기 내용은 물론 양팀 격인 스타들의 쇼맨십은 라이벌전의 묘미를 배가한다. 두 팀이 격돌할 3라운드 경기가 벌써 기다려진다.

신사정장 전문브랜드 | **The MAN** | **옷을 구입**

강남한복 | 판매·대여 전문점 |

미현데이 행사

강남한복 대여 80,000원~
더맨신사정장 대여 39,000원~

더맨신사정장 판매	159,000원~	기능성 바지	15,000원~	기능성 T	10,000원~
Y셔츠	15,000원~	패딩 점퍼	29,000원~	골프T	15,000원~

빅사이즈 정장, 콤비, 코트, 바지, 특별세일

제주시 오남로 20 (종합운동장과 보건소사이) 문의 : 064 752.8899